

국민참여당 통합 반대 금속노동자 선언

통합 진보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신자우주의 세력과의 통합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15만 금속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지금까지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재벌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해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보정당 일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법·과건법·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노동악법을 만들어 85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신자우주의 정치세력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일부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오류와 한계에 대해 성찰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국민참여당이 신자우주의 세력이 아니라며 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참여당과 선 통합 후에 민주당과의 연합 및 대통합을 진행할 거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생생한 증거가 6월 19일 민주노동당대회에서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당 강령을 삭제한 행위다.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는지 기억하고 있다. 지금 한진중공업 김진숙 동지가 200일이 넘게 올라가 있는 85호 크레인에서 김주익 열사가 129일을 싸우다 목을 매고, 광재규 열사가 도크 아래 몸을 던지게 만들었던 것도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했던 바로 그 때였다. 현대중공업 박일수, 현대자동차 류기혁 열사가 자결하고, 현대하이스코 130m 크레인 농성을 비롯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하늘로 올라가 피를 토하며 싸운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북도청과 군산시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100억을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조선소에 신규 일자리만 1만1000여개가 생기고 협력사 직원까지 합한 연간 인건비가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최근 4년간 정규직은 48명을 채용했고,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다. 생산현장은 25개 사내하청 2,700명의 하청노동자가 연봉 2,500만원을 받으며 뜨거운 화염 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정규직 0명' 공장이다. 오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만 늘었을 뿐이다. '고용 없는 성장, 일할수록 가난한 노동'을 자신들의 업적이라 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우주의는 단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의 피눈물이 담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결코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힌다. 통합 진보정당에 신자유주의 세력을 참여시키려는 시도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통합 진보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당연히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패권과 붕괴되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변혁적 가치와 지향,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함을 담대하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통합 진보정당은 정리해고법·파견법·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들어 85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통합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 특히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며, 의회에 갇힌 정당이 아닌 희망버스를 비롯해 거리에서 대중과 함께 싸우는 정당이어야 한다.
3. 통합 진보정당은 무너져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 변혁적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세상 노동이 주인인 정치를 염원하는 금속노동자 일동

<제안자>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한효섭 경주지부장, 차광호 구미지부 부지부장, 최은석 전 경남지부 부지부장, 이정훈 HK지회장, 김소연 기륭전자분회장,

신현창 GM대우차비정규지회장, 현대차지부 조창묵 판매서북부지회장, 박성락 · 엄길정 · 오승욱 · 이상호 · 손준필대의원, 김대식 열사회사무국장, 황종하 해고자, 김병기, 전광해 조합원, 기아차지부 김우용 · 최영규 대의원

국민참여당 통합 반대 금속노동자 선언

[illegible]